

# [기고] Future Jeju, 미래 농업용수 청사진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24.12.20 17:47 | □ 호수 3643

## 제주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제주지역은 기후변화의 가혹한 현실을 몸소 체험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동부 지역의 당근 모종이 말라버렸고,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광어가 순식간에 폐사했다. 또한 11월 성산 지역에 내린 하루 242mm의 폭우는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농업비중이 전국평균(1.6%) 보다 5.7배나 높은 제주에서는 훨씬 심각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현재 농업용수의 94%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남용으로 이용가능한 지하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관정과 관로의 노후화로 물 이용율과 수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작부체계 변화와 시설하우스 증가로 인한 물 부족 문제와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은 농업 생산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농업을 지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완료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은 이러한 문제의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농업용수 공급량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며 스마트한 물 관리를 통해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계획은 상위 계획인 '제주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립하고 있는 10개년 법정계획으로 '자연과 농업인이 함께 누리는 제주 농업용수'를 비전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27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공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관로와 시설물 재정비 △저수조 용량 확충 △친환경 배수개선 △홍수 조절용 저류지 기능 개선 등의 새로운 과제를 반영하고,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관정 취수허가량 조정 △용천수를 활용한 제주형 저수지 조성 △농업용 시설물



김동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 지역본부장

수계 연결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전역 물 순환 공급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해결책도 마련했다.

특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농어촌공사, 전문가, 농민단체, 농업인 등이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96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2030년까지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된다면, 제주도의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소와 더불어 지하수 의존률은 94%에서 79%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저수조 증설과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 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시설물 원격제어, 실시간 누수감시 등 스마트 농업용수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 관리 효율성을 한층 높힐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종합계획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농업용수 종합계획의 성패는 향후 100년 제주 농업의 미래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

